일본 기업

21783583 일본어일본학과 야마구치 미호

일본에는 다양한 기업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일본 3대 대기업이라고 할 수있는 기업은 미츠비시,토요타자동차,파나소닉이다.

미츠비시는 메이지시대때부터 이어지고있어서 역사가 깊고, 자동차,금융,전자 등 다양한 사업을 다루고있고다. 국내에는 13의 거점, 해외에는 195의 거점이 존재하고 있다.

도요타는 생산량 기준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이며, 연간 천만 대 이상의 차를 생산한다. 12년간 국내 1위 매출수를 유지하고, 2012년부터4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쇼와8년부터 이어지는 대기업이고외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자동차 종류는 렉서스(Lexus) 코롤라(Corolla) 등이 유명하다. 도쿄, 뉴욕, 런던 증권거래소가 있는 상장기업이고 전 세계 직원 수는 약 33만 8,880명이다. 토요타자동차는 도요타 사키치(豊田佐吉)가 G형 자동방직기 특허권을, 판 돈으로 그의 아들 키이치로(喜一郞)가 1933년 도요타자동직기제작소 내에 자동차부(部)를 설치하면서 출발하였다. 1937년 자동차제조회사로 독립하였고, 지금은 주택, 금융, 정보통신 쪽에도 진출하고 있다. 1989년에는 '렉서스(Lexus)’라는 브랜드로 고급승용차를 출시하여 벤츠와 BMW를 넘어서는 성공을 거두고, 실용차종의 강자에서 전(全)차종의 강자로 올라섰다. 세계 곳곳에서 현재 연간 6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팔고 있다.

파나소닉은1918년에 일본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오사카에 Matsushita Electric을 설립한게 시작이다. 1931년에 라디오를 생산이 시작해서 일본 전자산업의 발달 되어갔다. 1955년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오디오 장비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마쓰시타 전기산업은 2008년 10월 1일 사명을 파나소닉(Panasonic)으로 변경했다. 파나소닉의 제품으로는 디지털 카메라, 다리미, 냉장고, 에어컨, 비데 등의 가전제품, 발마사지기, 혈압계 등의 건강용품, 프로젝터, CCTV, 등의 방송, 시스템기기 등이 있다.

하지만 일본을 떠받쳐온 것은 대기업이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국내 기업수는 421만사중에 0.3%가 1.1만사로 대기업, 99.7%가 419만사로 중소기업이다. 일본의 산업계에서 대기업의 지배력이 높으나 전체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개개의 중소기업은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결코 평탄하지 않는 영고성쇠를 경험해왔고, 경제변화와 함께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도 변화해왔다.

전전 재래산업을 포함한 중소영세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전시중 정부는 중소기업을 정리하고 그 노동력을 군수산업으로 흡수하는 기업정비를 강행했는데, 대전 말기에는 군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많은 중소기업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패전 후 각종 중소기업은 또다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고, 1948년 중소기업청이 설치되면서 중소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그리고 1963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정책은 금융, 조직화, 지도 및 진단을 큰 축으로 하여 체계화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크게 발전하였는데, 중소기업 가운데는 이전의 대기업의 종속적인 지위를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다. 1970년대부터 일본 경제가 안정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도 지식집약화가 강조되고, 최근에는 창업이나 신분야 진출, 연구개발 등에 중점이 놓여지고 있다.